

조선시대에 사용된 詩箋紙의 시대적 특징

Four Types of the Ornamental Notepapers in the Joseon Dynasty

손 계 영(Son, K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2.2 국내의 시전지 수용 |
| 2. 시전지의 유래와 수용 | 3. 시대적 특징 |
| 2.1 중국 시전지의 유래 | 4. 맺음말 |

<초 록>

본고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시전지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그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선시대의 시전지는 각 시기에 따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유형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1) 全面紋型 詩箋紙는 1400년대 이전부터 사용하던 형태로 17세기 초반까지 나타나는 시전지이다. 이 유형의 시전지는 현재까지 그리 많은 양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15-16 세기에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산수나 인물 등의 문양을 종이의 전면에 배치한 형태인데, 선의 윤곽 및 색깔은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

2) 1500년대 초·중반부터 보이는 竹冊紋型 시전지는 竹片을 연결한 듯한 竹冊문양이 기본적인 형태이고, 대부분 죽책문양과 함께 우측에 다양한 형태의 문양과 짧은 문구를 같이 배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죽책문형 시전지는 1500년대 초·중반부터 1600년대 중·후반까지 150여 년간 사용되었다.

3) 始面紋型 시전지는 1600년대 중반부터 사용한 용례가 보이고 있으나 1600년대 후반 부터 1700년대 후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유행하던 시전지이다. 죽책문형 시전지의 문양에서 죽책문양이 사라진 형태로, 종이의 우측에 문양 또는 문구만 있는 다소 간략한 구성이다.

4) 1800년대로 넘어가면 短札紋型 시전지가 크게 유행하였다. 종이의 크기가 평균 엽서 2장 정도의 크기로,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작아지고 종이크기가 규격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 유형은 1900년대 전반까지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要語 : 시전, 화전, 시전지, 시전지판, 간찰, 시문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교수(sonkey@knu.ac.kr)

접수일: 2007년 6월 3일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1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ssify various ornamental notepapers largely used in the Joseon Period, according to their physical features and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by period. Those ornamental notepapers classified into four types generally exhibit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Full-patterned ornamental notepapers(全面紋型) had appeared before the 15th century, but still used in the early 1600s. This type of notepapers, only rarely found in these days, were typical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On the entire surface of a paper, patterns such as hills and streams or people were placed, and the outlines and colors of lines were not much clear.

2) Bamboo-patterned ornamental notepapers(竹冊紋型) had appeared since the early to mid-1500s. The basic patterns of this type of notepapers look like connected bamboo pieces, and many of them have various other patterns and short phrases with the pattern of bamboo pieces on the right side of a paper. They were used for almost 150 years till the mid- and late 17th century.

3) Right-side-patterned ornamental notepapers(始面紋型) were known to be used in the mid-1600s, but most popular since the late 1600s through the late 1700s. This type of notepapers have rather simple patterns or phrases without the pattern of bamboo pieces on the right side of a paper.

4) Small-letter-type ornamental papers(短札紋型) became popular in the 1800s. They were normally as small as two postcards, and their size, much smaller than those of papers as earlier used, became standardized. This type of papers were naturally used until the early 1900s.

Key words : Ornamental notepaper(詩箋紙), Old letter(簡札),
Poetry and prose(詩文)

1. 머리말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교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매체 중 하나가 간찰과 시문이었다. 간찰과 시문을 통해서 자신의 소식과 감정을 전달하고 멋과 풍류를 담았다. 당시에 작성된 간찰과 시문의 일부는 작자의 문집에 실려 있어 작자와 그 주변인물의 교유관계 및 당시의 다양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간찰과 시문은 현재까지 많은 양이 실물로 전해지고 있고, 최근 이들 자료를 공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내용과 형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문인들은 주변인물과 서신·시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색상과 문양이 있는 종이인 詩箋紙이다.¹⁾ 멋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시전지에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자신의 소식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전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시전지의 다양한 용례를 연구함으로써 당시 문인들의 운치와 예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른 양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시전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1991년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시전지판을 직접 탁본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²⁾ 이후 10년이 지난 2001년에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선시대 목판전인 ‘면과 선의 세계’라는 전시회가 있었으며, 시전지에 관한 연구와 함께 다량의 시전지와 시전지판이 공개되었다.³⁾ 이후에는 시전지의 한 유형인 竹冊型 詩箋紙를 분석하거나,⁴⁾ 시전지 판화에 관한 연구,⁵⁾ 특정 문중 소장 시전지를 소개한 논문이 발표되었다.⁶⁾

1) 詩箋紙에서 ‘箋’자는 ‘글이나 편지를 쓰는 작은 쪽지’의 의미로, ‘牋’자와 통용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시대를 포함한 이전 시대부터 詩箋(또는 詩牋)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花箋(또는 花牋) 또는 華箋(또는 華牋)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신윤진, 『韓國 詩箋紙版의 무늬와 意味에 관한 研究』,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3) 유흥준, “시전지와 시전지 목판화 연구초(抄),” 『면과 선의 세계』 (영남대학교박물관, 2001), 228-235.

4) 손계영, “詩箋紙의 유형과 특징 -竹冊型 詩箋紙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제23집(韓國古文書學會, 2003), 95-119.

본고에서는 기관 및 문중·개인 소장 시전지를 대상으로, 시대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시전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형태는 전후시기에 따라서도 뚜렷한 구분이 있어 상당히 흥미롭다.

대부분의 간찰과 시문의 경우 작성시기를 알려주는 간지를 꼼꼼히 기입하기보다는 일간지만을 표기하기 때문에 작성시기를 밝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발수급자 또는 자료의 내용을 통해 작성연도를 유추하는 경우가 많다. 간지조차 없는 경우에는 작성된 대략적인 시기조차 찾을 수 없는데, 시전지 유형의 시대적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작성 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시전지의 유래와 수용

2.1 중국 시전지의 유래

우리나라의 시전지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중국의 시전지 유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전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⁷⁾

元나라 費著의 「牋紙譜」에 의하면, 최초의 시전지는 謝景初(1020-1084)와 薛濤(768-831)라는 인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謝景初는 11세기 인물로 宋나라 사람이다.⁸⁾ 그는 편지를 쓸 때 편리하도록 牋이라는 형태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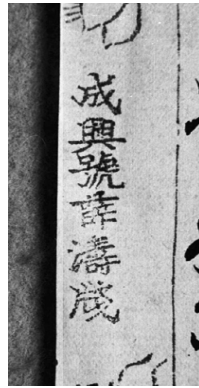
5) 고연희, “조선시대 시전지의 판화 고찰,” 『美術史學報』 제23집(美術史學研究會, 2004), 253-285.

6) 李完雨, “韓山李氏 修堂古宅 소장 名人筆蹟,” 『禮山 韓山李氏 修堂古宅篇』(韓國學中央研究院, 2005), 184-218.

7) 손계영, 앞의 논문, 100-103.

8) 謝景初(1020-1084)는 宋 杭州 富陽人으로, 자는 師厚, 호는 今是翁, 謝絳子이다. 仁宗 慶曆6년(1046)에 進士. 餘姚縣을 다스릴 적에 백성들이 사적으로 소금을 굽는 것을 금하여 課稅를 증액했으며, 바다에 제방을 쌓아 潮水를 막았다. 秀州·汾州·唐州·海州 등 여러 고을의 通判을 거쳤고, 湖北으로 옮겨 判官으로 승진했다. 神宗 熙寧(1068-1077) 初에 靑苗와 免役 등의 법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탄핵을 받았다. 博學하여 文章에 능했으

또한 深紅·粉紅·杏紅·明黃·深靑·淺靑·深綠·淺綠·銅綠·淺雲인 10가지 종류의 色紙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⁹⁾ 사경초와 더불어 종이로 이름을 얻은 이로 薛濤가 있었다. 설도라는 여성은 원진, 백거이, 두목과 같은 명사들과 시를 주고받았는데, 이때 직접 진홍색의 작은 채색 전지를 만들어 시를 써 보냈고,¹⁰⁾ 그 종이를 ‘薛濤箋’이라 불렀다.



<그림 1> ‘薛濤箋’ 문구가 있는 시전지

설도전은 이후에도 시전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眞城李氏 樊南後孫家 소장 시전지를 보면, 왼쪽 끝단에 ‘成興號薛濤箋’이라는 문구가 찍혀있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의 ‘薛濤箋’은 「箋紙譜」에 기록된 ‘薛濤箋’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해 볼 때 사경초와 설도의 箋紙는 문양이 있는 종이라기보다 色紙에 가까운 형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箋紙譜」에서는 薛濤箋 이외에도 百韻箋, 靑白箋, 學士箋, 小學士箋, 姑蘇箋, 假蘇箋, 蜀箋 등 다양한 箋紙의 명칭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즉 箋의 색깔, 크기, 재료에 따라 箋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 종이에 문양을 찍었던 箋으로는 姑蘇箋, 假蘇箋이 있었다.¹¹⁾ 姑蘇箋과 假蘇箋은 종이

며, 詩에 더욱 뛰어났다. 저서로 「宛陵集」이 있다. 「中國歷代人名大辭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2382.

9) “紙以人得名者 有謝公 有薛濤 所謂謝公者 謝司封景初師厚 師厚創箋樣 以便書尺俗因以爲名…謝公有十色箋 深紅·粉紅·杏紅·明黃·深靑·淺靑·深綠·淺綠·銅綠·淺雲 卽十色也.” 費著, 「箋紙譜」, 「歲華紀麗譜」(「影印」文淵閣四庫全書」第590冊, 438).

10) “薛濤本長安良家女 父郞因官萬蜀而卒 母孀養 濤及笄以詩聞外…濤出入幕府 自阜至李德裕 凡歷事十一鎮 皆以詩受知 其間與濤唱和者 元稹 白居易 牛僧孺 令狐楚 裴度 嚴綬 張籍 杜牧 劉禹錫 吳武陵 張祐餘 皆名士記載 凡二十人 競有酬和 濤僑止百花潭 躬撰深紅小彩箋 裁書供吟 獻酬賢傑 時謂之薛濤箋 晚歲居碧雞坊 創吟詩樓 偃息於上 後段文昌再鎮成都 太和歲濤卒 七十三…濤所製箋特深紅一色爾.” 費著, 앞의 책, 438-439.

11) “倣姑蘇作雜色紛紙曰假蘇箋 皆印金銀花於上 承平前輩 蓋常用之 中廢不作 比始復爲之 然姑蘇紙多布紋 而假蘇箋皆羅紋 惟紙骨柔薄耳 若加厚壯則可勝蘇箋也.” 費著,

위에 금이나 은으로 花文을 찍은 牋紙인데, 분명 詩箋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費耆가 생존하던 13-14세기의 元대에 이미 문양이 있는 시전지의 한 형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전지 사용의 가능성은 당시의 목판인쇄 및 채색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목판인쇄가 성행하였던 명·청대는 물론이고, 목판으로 도형을 찍었던 송대부터 시전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魯迅(1881-1936)의 「北平箋譜」 서문에 의하면,¹²⁾ 五代 말엽에 刊印하여 송대 초에 채색한 印本이 있을 정도로 목판인쇄술의 시기가 송대 이전으로 올라가고, 송대에는 도서에 도형을 삽입하기 시작하여 명대에 이르러서 목각기술이 크게 확산되고 발전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청대에 소박해지는 현상이 있다가 光緒初에는 목각인쇄술이 쇠퇴하여 새해에 쓰는 花紙나 일상생활에서의 信箋에서 정교한 목각인쇄가 겨우 보존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정교한 목각인쇄가 겨우 남아 있었다는 花紙와 信箋이 시전지의 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목각인쇄술과 채색기술이 있었던 시대라면 시전판을 만들고 판 위에 채색하여 箋紙에 찍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시전지를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의 「전지보 와 북평전보」 서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중국에서는 송대부터 목판인쇄술과 채색기술이 존재하였고, 원대에 彩色箋紙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원대 이전에 시전지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의 책, 439.

- 12) 「北平箋譜」는 詩箋을 圖譜로 선집한 것으로, 목판본에 채색을 하여 1933년 12월에 간행하였다. 魯迅이 西諦(鄭振鐸)와 함께 편찬하였으며 자비를 들여 간행하였다. 모두 6책이며 내용은 인물전, 산수전, 화전 등 332폭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敦煌千佛洞所得佛像印本, 論者謂當刊于五代之末, 而宋初施以采色, 其先于日耳曼最初木刻者, 尙幾四百年. 宋人刻本, 則由今所見醫書佛典, 時有圖形; 或以辨物, 或以起信, 圖史之體具矣. 降至明代, 爲用愈宏, 小說傳奇, 每作出相, 或拙如畫沙, 或細于擘髮, 亦有畫譜, 累次套印, 文彩絢爛, 奪人目睛, 是爲木刻之盛世. 清尙朴學, 兼斥紛華, 而此道于是凌替. 光緒初, …綉梓遂愈少, 僅在新年花紙與日用信箋中, 保其殘喘而已.” 魯迅(1881-1936), “北平箋譜序,” 「魯迅全集」第7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405.

2.2 국내의 시전지 수용

우리나라의 시전지 문화가 받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문헌기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시전지가 어떻게 유래되었고 수용·발전되었는지를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고려시대 활동했던 인물의 문집에서 시전지를 의미하는 ‘詩箋·花箋’¹³⁾이란 용어가 산적되어 있어 고려 시대에도 이미 시전지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고려시대 시전지의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 어떤 형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시전지를 다룬 문헌기록이 많고 그 실물이 다량 현존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시전지 문화를 실감할 수 있다. 당시 문인들은 대부분 시 또는 편지를 쓰기 위한 용도로 시전지를 사용하였다. 시전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시와 소식을 보내기도 하고, 절친한 인물 또는 명인의 친필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자신의 시전지를 꺼내어 상대방에게 作詩와 筆跡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¹⁵⁾ 그렇기 때문에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물품 중 하나가 시전지였으며, 더욱이 중국이나 일본의 사신에게 주는 선물 중 시전지는 으레 들어가는 주요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¹⁶⁾ 또한 조선왕실 및 각 아문에서 사용하였던 주요 물자를 기록한 문헌에서 시전지의 종류와 가격을 표기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유행하였던 종이의 한 종류였음에 틀림없다.¹⁷⁾

-
- 13) 詩箋(또는 詩牋)이라는 용어와 함께 花箋(또는 花牋, 華箋, 華牋)을 사용한 용례가 다수 보인다. 특히 고려시대 인물의 문집에서는 ‘시전’보다 ‘화전’의 사용빈도가 높다.
- 14) “有人展花牋 請我筆一擲”『東國李相國後集』卷2; “司院洪承傳□花牋一軸示予云 此乃聖考墨跡 其所書詩”『南陽先生詩集』卷上; “講席花牋費幾番 爭陳鯁義錄嘉言”『及菴先生詩集』卷3.
- 15) “仍各出花箋 請書此詩 以爲留別之資”『心田稿』卷3; “卽做奏文數行 其文曰 風寒洙泗道 磬寥寥 明道堂上 更振大鳴 幸屬國愚蒙 願立階庭之下 聞餘響之鏗鏘 伏念僉大老相國 勿拒善變於華者也 此文正書華箋”『錦溪日記』5月 25日.
- 16) “該都監啓言 上副勅例別贈外 各 清心丸 一千八百丸 竹清紙 三十卷 苔紙 十卷 五色詩箋紙 二十卷 鏡光紙 二十卷 黃筆 一百柄 式求請”『日省錄』正祖10年 丙午 9月 11日 辛巳條; “接見大官 以內下賜給日本全權之 四書 各一秩 詩箋紙 五卷 色筆 一百柄 彩墨 五十丁 白細苧 十疋 白綿紬 十疋 使訓導玄昔運傳送 啓”『高宗實錄』高宗13年 2月 初4日.
- 17) “唐詩箋紙 一匣價錢八錢 各色詩箋紙 一張價錢四分,”『度支準折』.

당시의 시전지(또는 화전지) 형태를 기록한 문헌을 살펴보면 다양한 색상과 문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시전지의 색상에는 붉은색, 황색, 푸른 연두색, 흰색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붉은색 시전지의 경우 염색이 피보다 더 짙다고 표현하는가 하면,¹⁸⁾ 붉은 새벽 노을빛에 비유하기도 하였다.¹⁹⁾ 또한 푸른 연두빛의 시전지는 碧雲으로 그 색깔을 표현하였고,²⁰⁾ 흰색 시전지의 경우에는 눈(雪)에 비유하기도 하였다.²¹⁾

시전지를 ‘花箋’이라고도 한 것은 시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문양이 꽃이기 때문이다. 문인들의 고상한 취미나 자연 탐닉에서 꽃은 빠질 수 없는 소재였고, 선비의 절개와 은둔을 표현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다양한 꽃문양 시전지 가운데서도 특히 단아한 문양을 선호하는 추세였는데,²²⁾ 매화, 국화, 복숭아꽃, 연꽃 등이 대표적이다. 李景奭(1595-1671)이 金尙憲(1570-1652)에게 보낸 시전지 문양에 대해 金尙憲이 묘사한 시가 그의 문집에 남아있는데,²³⁾ ‘寒梅’, ‘梅花箋’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매화문양의 시전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金尙憲이 張維(1587-1638)에게 시전지를 선물로 보낸 일이 있는데, 장유는 감사의 뜻으로 그 시전지를 묘사한 시를 썼다. 金尙憲이 보낸 시전지의 문양은 복숭아꽃과 국화꽃이었다. 이에 대해 장유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²⁴⁾

그대도 알다시피 무릉 신선촌의 一萬 그루 도화꽃은	君不見武陵仙村萬樹花
봄이 오면 노을이 타듯 곳곳을 붉게 물들이고	春來處處蒸紅霞
또 알다시피 동쪽 담장 연명이 만 국화 꽃잎은	又不見淵明掇英東籬邊
서리 맞아 무르익은 황금색 동전	霜天爛熳黃金錢

18) “仁卿以詩寄花箋一封, …幾幅華箋罄久藏 想應謀婦發書箱 染勝猩血光搖眼…” 「企齋集」卷9.

19) “詩箋色奪曉霞紅 筆爲昏花淡又濃,” 「竹南堂稿」卷2.

20) “十幅花箋染碧雲,” 「蘭雪軒詩集」.

21) “碧樹蟬聲入耳清 此時雲衲錫飛輕 重披舊軸摩挲久 雪色花箋半晦明,” 「白軒先生集」卷14.

22) “硃墨付惠 花箋之花樣稍雅者有儲餘 若干及之 無則不必掛念,” 「阮堂全集」卷4.

23) “蔡倫遺法剝青苔 後世溪藤雪樣裁 把贈一函還有意 知君詩興在寒梅(右和謝梅花箋)” 「清陰先生集」卷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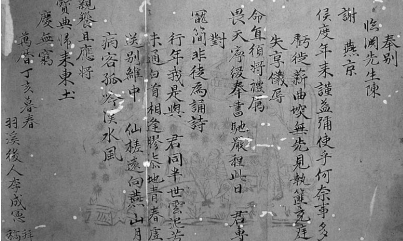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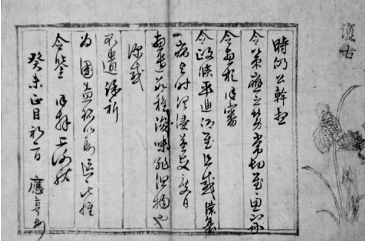

24) ‘桃菊華箋歌 奉謝清陰公見貺,’ 「谿谷先生集」卷26. 번역은 「(국역)谿谷集」(이상현 역, 민족문화추진회, 1996), 152-153. 참조.

두 꽃의 기막힌 風致 그지없이 뛰어나니	仙風逸韻兩超絶
두고두고 騷人 墨客 입에 오르내리리라	長與騷人作口實
회계 선생의 고야와 같은 자태	會稽先生姑射姿
눈과 얼음처럼 깨끗한 피부 지니고서	天然皎潔冰雪肌
평생토록 환골법을 사모한 끝에	平生雅慕換骨法
버릇처럼 영원과 취석 찾아다니며	慣尋靈源訪醉石
따먹은 꽃잎 津液 살 속 깊이 배이더니	餐英咀華挾肌髓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뀐 환상적인 새 얼굴	一朝幻出新面目
불그스레 술 취한 절세가인 얼굴인 듯	絶代佳人醉顏酡
황금 빛 발산하는 釋迦如來 法身인 듯	西方大聖渾金色
시선이 하늘에 올라 文壇이 텅 빈 뒤론	詩仙上天藝苑空
온갖 수도 감수하며 탁세에 홀로 남았도다	獨立濁世甘棄擲
청음학사 참으로 나를 알아주시는 분	淸陰學士眞知己
인편에 이 종이를 묵소자에게 보내 왔네	紹介來投嘿所子
묵소자 홀연히 그대 종이를 대하고는	嘿所子忽逢君
청안이 번쩍 열리면서 기쁜 빛이 얼굴 가득	雙開靑眼敷映喜
博山爐에 沈水香 피워 놓고	薰之以博山沈水之淸煙
밝은 창가 櫃子나무 几案에 모신 뒤에	薦之以明牕文櫃之淨几
栗尾筆 시험하니 피어나는 꽃송이	試拂栗尾彩花開
隄隳墨 일점 일획 보랏빛 광채	爲點隄隳紫光起
해와 달 바람 구름 아롱아롱 繡놓여	日月風雲入藻績
명산 석실에 보관된 뒤 신비의 빛 내쏘리니	名山石室生光怪
그대에게 내 속마음 모두 털어놓으면서	與君終始託心曲
검다 희다 세상의 조롱 개의하지 않으리라	任他俗子嘲玄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가진 시전지는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글의 내용과 글씨를 담기 위해 시전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양한 문양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문양은 꽃이었고, 특히 매화·국화·도화 문양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다. 대체로 사군자나 화조화에서 매화는 일년 중 가장 먼저 피는 꽃으로 봄소식, 기쁜 소식을 상징하고, 국화는 도연명의 은둔생활을 상징하고, 도화는 무릉도원의 유유자적한 삶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이곤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문양이 찍힌 시전지를 주로 사용했다는 것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일체되는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단아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시대적 특징

본 연구에서는 작성연대가 명확한 간찰 또는 시문의 시전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²⁵⁾ 작성연대가 명확한 시전지 가운데 이른 시기의 것으로 1493년에 작성된 시전지가 있다.²⁶⁾ 이후 16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전

A유형	B유형
	
<p>1587년, 李成憲, 「朝天別章」, 흥해배씨 배삼익종손가</p>	<p>1643년, 安應亨, 「名宰手簡」, 해주오씨 추탄종택.</p>
C유형	D유형
	
<p>1698년, 金萬謹, 「別章帖(上)」, 해주오씨 추탄종택.</p>	<p>1888년, 李憲植, 진보이씨 번남후손가.</p>

<그림 2> 조선시대 시전지의 대표적인 유형

- 25) 연구대상으로 삼은 시전지는 기관, 문중,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간찰 또는 시문이며, 낱장이거나 帖에 수록된 형태를 띠고 있다. 유형의 분석에 있어서는 작성연도가 명확한 152건의 시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 26) 1493년 이전의 시전지도 다수 있다. 崔德之(1384-1455)의 시전지(「權墨」,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및 1472년에 작성된 崔恒(1409-1474)의 시전지, 같은 해에 작성된 洪應(1428-1492)의 시전지(「名家筆蹟集」 第一帖,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자료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지가 전해오고 있는데, 이들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유형은 1400년대 이전부터 사용하던 형태로 17세기 초반까지 나타나는 시전지이다. 이 유형의 시전지는 현재까지 그리 많은 양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15-16세기에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산수나 인물 등의 문양을 종이의 전면에 배치한 형태인데, 선의 윤곽 및 색깔은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

1500년대 초·중반부터 보이는 B유형의 시전지는 竹片을 연결한 듯한 竹冊문양이 기본적인 형태이고, 경우에 따라 죽책문양과 함께 우측에 다양한 형태의 문양과 짧은 문구를 같이 배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또한 B유형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B유형의 시전지는 1500년대 초·중반부터 1600년대 중·후반까지 150여 년간 사용되었다.

C유형은 1600년대 중반부터 사용한 용례가 보이고 있으나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후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유행하던 시전지이다. B유형의 형태에서 죽책문양이 사라진 형태로, 종이의 우측에 문양 또는 문구만 있는 다소 간략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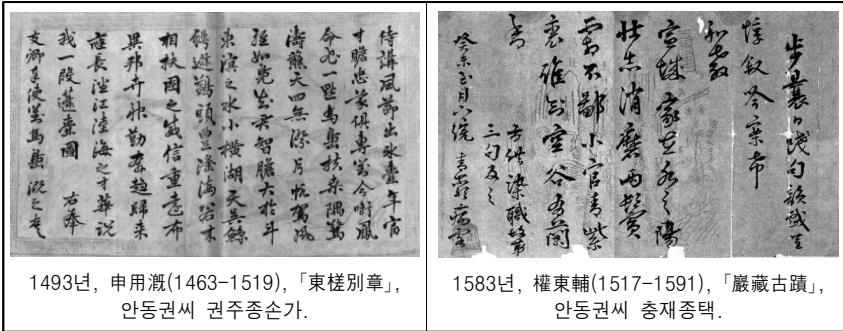
1800년대로 넘어가면 D유형의 시전지가 크게 유행한다. 종이의 크기가 평균 엽서 2장 정도의 크기로,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작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종이크기가 규격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 유형은 1900년대 전반까지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4가지 유형을 논의전개를 위해 편의상 全面紋型(A), 竹冊紋型(B), 始面紋型(C), 短札紋型(D)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3.1 A유형 : 全面紋型

A유형 시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문양이 종이의 전면에 도포된 듯 새겨져 있으며, 시전지 문양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관화와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문양의 구성이 종이의 전면에 밑그림 형식으로 새겨진 특징을 들어 A유형 시전지를 편의상 全面紋型이라 하였다.

문양의 대상은 山水, 花鳥, 雲紋 등이거나, 고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로 15-16세기의 시전지에서 볼 수 있고, 17세기 초반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17세기 이후의 시전지와 비교하여 문양의 선이 선명하지 않아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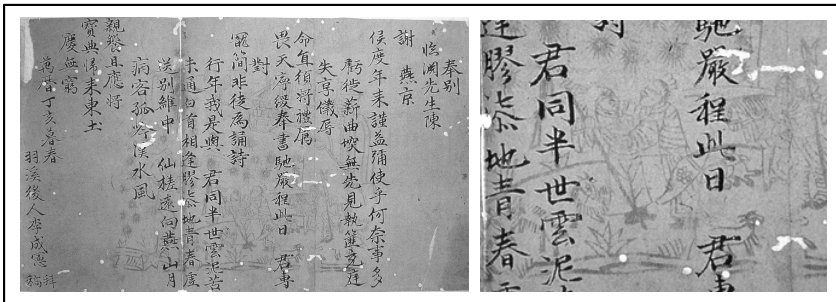
<그림 3> 全面紋型 詩箋紙의 형태

현존하는 전면문형 시전지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1493년 申用漑(1463-1519)가 안동권씨 권주에게 쓴 시전지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사각테 두리가 있고, 그 안에 기러기 한 쌍이 있는 문양이 종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그림 3의 左).²⁷⁾ 1519년 曹伸이 농암 이현보에게 쓴 시전지의 경우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국하나 모란의 종류를 새긴 것으로 보인다.²⁸⁾ 1583년 權東輔(1517-1591)

27) 안동권씨 權柱宗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東槎別章」에 수록되어 있다. 「동사별장」은 권주(1457-1505)가 1493년 홍문관응교로 재직시 경차관에 선발되어 대마도를 내왕할 때 여러 명류들로부터 받은 친필 서문과 전별시를 작첩한 것이다. 「귀중본자료집」(한국국학진흥원, 2002).

28) 龔巖 李賢輔(1467-1555) 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愛日堂具慶帖」에 수록되어 있다. 「애일당구경첩」에 수록되어 있는 曹伸의 축하시는 1519년 농암의 화산양로연을 축하하기 위해서 39명의 당대 명현들이 쓴 시 중 하나이다. 1519년의 화산양로연은 이현보가 안동부사로 봉직시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양로연을 베풀었던 행사이다. 「애일당구경첩」에는 조신의 시전지 이외에 金安國(1478-1543), 黃汝獻(1486-?), 文耀(1475-1519)의 축하사에서 시전지를 사용하였다. 그 중 김안국과 황여현의 시전지는 구름문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雲紋 시전지이지만, 종이 전체에 문양이 자리잡고 있어

의 시전지(그림 3의 右)²⁹⁾와 1597년 金富倫(1531-1598)의 시전지³⁰⁾에는 산수와 나무가 있는 풍경이 종이 전반에 새겨져 있다. 1587년 李成憲의 시전지 문양에는 두 인물이 화면의 중앙에 부각되어 있는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인물이 갑옷과 투구를 쓴 인물을 반갑게 안아주는 모습이 있다(그림 4).³¹⁾ 마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장수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담은 듯 한데 고사에서 유래된 문양으로 추측된다. 1609년 李廷龜(1564-1635)의 시전지에는 한 여인이 물 위에서 뱃놀이를 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³²⁾ 이외에도 1551년 尹復(1512-1577)의 시전지,³³⁾ 1609년 柳根(1549-1627)의 시전지³⁴⁾ 등이 여러 건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 문양의 윤곽과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 형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림 4> 全面紋型 詩箋紙의 예(1587년, 李成憲, 「朝天別章」, 흥해배씨 배삼익 종손가, 左) 및 세부(右)

전면문형 시전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문관의 시전지는 그 문양이 명확하지 않지만, 花紋을 종이 전반에 배치한 전면문형 시전지이다.

- 29) 안동권씨 충재종택 소장 「巖藏古蹟」에 수록되어 있다. 「퇴계이황」(예술의전당, 2001).
- 30) 「巖藏古蹟」에 수록되어 있다. 「퇴계이황」(예술의전당, 2001).
- 31) 흥해배씨 배삼익 종손가 소장 「朝天別章」에 수록되어 있다. 「조천별장」은 배삼익이 1587년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게 될 때 조정의 동료들로부터 받은 전별시를 작첩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성현의 시전지 이외에도 金貴榮, 俞泓, 柳永詢, 許希孫, 金殷輝 등의 전면문형 시전지가 있으나, 문양의 윤곽과 색깔이 선명하지 않아 문양의 형태를 구분하기 힘들다.
- 32) 진주정씨 우복종택 소장 「燕行贈言」에 수록되어 있다.
- 33)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權墨」에 수록되어 있다. 「權墨」(성균관대학교박물관, 1981).
- 34)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權墨」에 수록되어 있다. 「權墨」(성균관대학교박물관, 1981).

3.2 B유형 : 竹冊紋型

B유형의 시전지는 竹片이 연결되어 글씨를 쓰기 용이하도록 세로줄이 있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경우에는 시전지 문양에 ‘竹冊’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 편의상 竹冊紋型이라 하였다(그림 5).³⁵⁾ 죽편을 연결한



<그림 5> ‘竹冊’ 용어의 근거가 되는 詩箋紙(「文正公王考簡牘」)

듯한 죽책문양의 형태가 기본형이다. 죽책문형은 16세기 초·중반부터 17세기 중·후반 사이에 유행하던 시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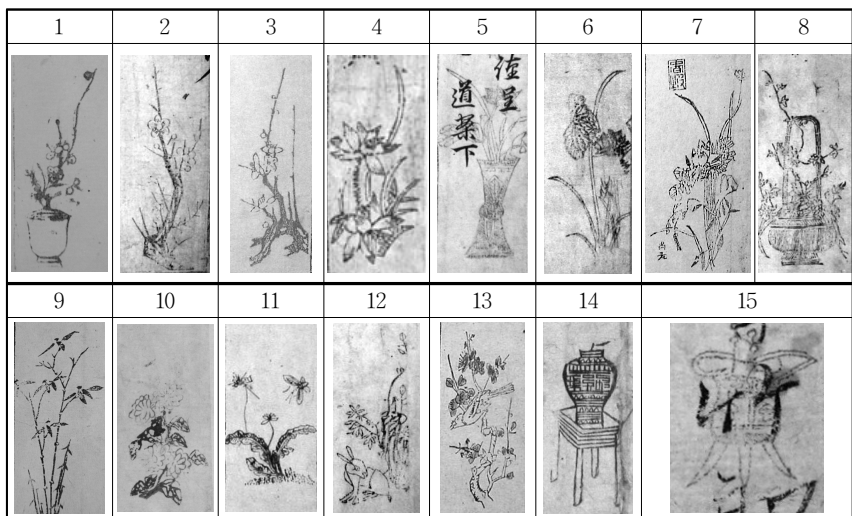
죽책문형 시전지는 죽책 문양과 그 우측에 다양한 형태의 문양 또는 문구를 배치한 경우가 많다. 이를 세분하면 <그림 6>과 같이 죽책 문양만 있는 경우(가), 죽책과 우측문양이 있는 경우(나), 죽책과 우측문구가 있는 경우(다), 죽책과 우측 문양·문구가 있는 경우(라) 등 네 형태로 분류된다.

35) 『詩箋紙의 유형과 특징』(손계영, 『古文書研究』 제23집, 2003)에서는 이 유형을 ‘竹冊型’이라 명명하였다. 본고에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면서 각 유형마다 그 특징과 함께 ‘○○紋型’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竹冊문양이 있는 B유형의 명칭을 ‘竹冊紋型’으로 정정하고자 한다.

<p>(가) 竹冊</p>  <p>1659년, 李東溟(1624-1692), 「諸公贈言」, 은진송씨 동춘당후손가.</p>	<p>(나) 竹冊+우측문양</p>  <p>1645년, 尹鳴殷(1601-1646), 「名宰手簡」, 해주오씨 추단종택.</p>
<p>(다) 竹冊+문구</p>  <p>李行進(1597-1665), 「小大軒遺牘」, 은진송씨 동춘당후손가.</p>	<p>(라) 竹冊+우측문양+문구</p>  <p>1710년, 宋堯和(1682-1764), 「小大軒遺牘」, 은진송씨 동춘당후손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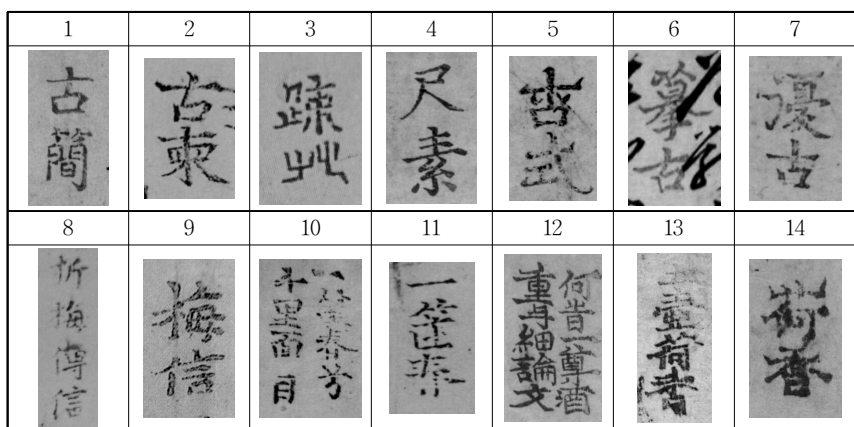
<그림 6> 竹冊紋型 詩箋紙의 다양한 형태

우측문양은 <그림 7>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매화(1~3번), 연꽃(4번), 난초(5·6·7번), 대나무(9번), 국화(10번) 등의 화훼문양이 절대다수이고, 盆花(1·5번) 또는 꽃바구니(8번) 문양도 유행하였다. 화훼와 함께 나비(11번), 토끼(12번), 새(13번) 등의 곤충·동물이 등장하는 화조문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식물 이외에도 받침대에 올려진 향아리(14번)나 삼발이(15번) 등 器皿을 새긴 문양도 자주 사용되었다.



<그림 7> 竹冊紋型 詩箋紙의 우측에 새겨진 문양의 예

죽책 문양의 우측 상단에는 두자 또는 그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진 함축적인 문구를 넣은 경우가 많은데, 주로 사용된 문구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竹冊紋型 詩箋紙의 우측에 새겨진 문구의 예

‘古簡’(1번)과 ‘古柬’(2번)은 옛 편지의 뜻이 있고, ‘疎艸’(3번)는 대충 쓴 글이라는 겸사의 의미이다.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표현이다. ‘尺素’(4번)는 서신을 가리키거나 멀리서 그리워하는 정을 표하는 뜻이다.³⁶⁾ ‘梅信’(9번)은 ‘折梅傳信’(8번)을 함축한 표현인데, 타향에 있는 벗에게 문안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한 뜻으로 쓰였다.³⁷⁾ ‘一筐春兮千里面目’(10번)은 한 광주리 가득 담겨있는 봄꽃을 시전지 속에 담아보내며 천리 밖에서도 얼굴을 마주하듯 그리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함축하여 ‘一筐春’(11번) 또는 ‘千里面目’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2번의 ‘何時一尊酒重與細論文’은 술 한 동이가 그려진 문양과 함께 있는 문구인데, 벗에 대한 그리움과 선비의 풍류를 담고 있다.³⁸⁾ ‘玉壺荷香’(13번)의 표현은 王昌齡이 芙蓉樓에서 친구를 송별하며 한조각 얼음 같은 자신의 마음(冰心)을 옥항아리에 두었다는 시구에서 유래한 것으로,³⁹⁾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과 벗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함축하여 ‘玉壺’, ‘荷香’(14번), ‘冰心’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3.3 C유형 : 始面紋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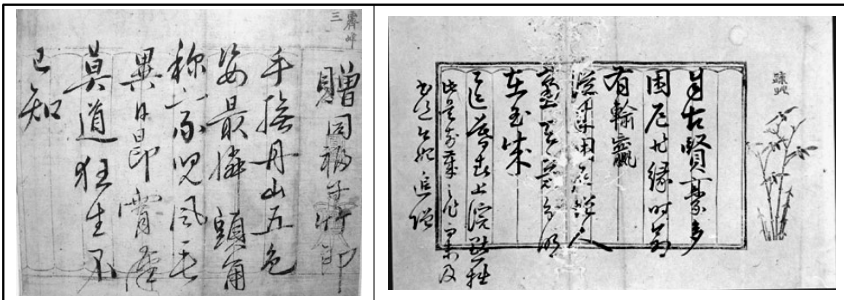
C유형의 시전지는 축책문형에서 축책 문양이 생략되고, 우측의 문양과 문구

- 36) ‘尺素’는 멀리서 수자리 살고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심정을 그린 古樂府詩에서 유래되는데, 멀리서 객이 가져온 잉어의 뱃속을 갈라보니 그 안에서 아내가 보낸 작은 書信이 나왔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前略)客從遠方來 遣我雙鯉魚 呼兒烹鯉魚 中有尺素書 長跪讀素書 書上竟何如 上有加餐食 下有長相憶” [梁]蕭統, 「飲馬長城窟行」, 「文選」(上海古籍出版社, 1277-1278).
- 37) 이 표현에 나오는 ‘折梅’는 陸凱(? - 약 504)와 范曄(398-445)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 范曄에게 매화 한 가지를 꺾어 시와 함께 보냄으로써 자신의 안부를 전한 陸凱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荊州記曰 陸凱與范曄相善 自江南寄梅花一枝 詣長安與曄 并贈花詩云 折梅逢驛使 寄與隴頭人 江南無所有 聊贈一枝春.” 「太平御覽」卷19 참조. 이 고사와 관련하여 ‘折梅’, ‘梅信’, ‘傳信’, ‘一枝春’의 문구가 같은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 38) 이 문구는 杜甫가 이백을 그리며 지은 시의 한 구절이다. “白也詩無敵 飄然思不羣 清新庾開府 俊逸鮑參軍 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 何時一尊酒 重與細論文.” 杜甫, “春日憶李白,” 「李太白集注」卷32.
- 39) “寒雨連江夜入吳 平明送客楚山孤 洛陽親友如相問 一片冰心在玉壺” 王昌齡, “芙蓉樓送辛漸,” 「萬首唐人絕句」卷17.

가 남아있는 형태이다. 종이의 가장 오른쪽에 문양이 있고, 문양의 왼쪽으로 간찰이나 시문의 문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종이의 가장 앞쪽, 시작부분(始面)에 문양이 새겨진 형태이므로 이 유형을 본고에서는 편의상 始面紋型이라 하였다.⁴⁰⁾

시간이 지날수록 문양이 화려해지고 판화의 기술이 발전되어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시전지의 경우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의외로 그 문양이 단순하고 소박해졌다. 반면 판화의 기술에 있어서는 多色문양의 시전지가 급증하게 되었다.

죽책문형 시전지의 죽책 문양은 칸에 맞추어 글씨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죽책문형 시전지의 칸수는 보통 7~16칸 정도인데, 그 정도의 칸수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기에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많은 경우 죽책 문양의 사방 여백에 연결하여 글을 쓰거나 처음부터 칸을 무시하고 글씨를 쓴 사례를 볼 수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竹冊의 칸을 무시하고 쓴 사례

40) 조선시대 각종 문서의 시작부분을 의미하는 경우 '始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형태적으로는 작성하는 종이의 가장 오른쪽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찰이나 시문의 시작부분(始面)에 문양이 있는 특징을 들어 始面紋型이라 하였다. “始面上同”(전경목 외, 『儒胥必知』, 사계절,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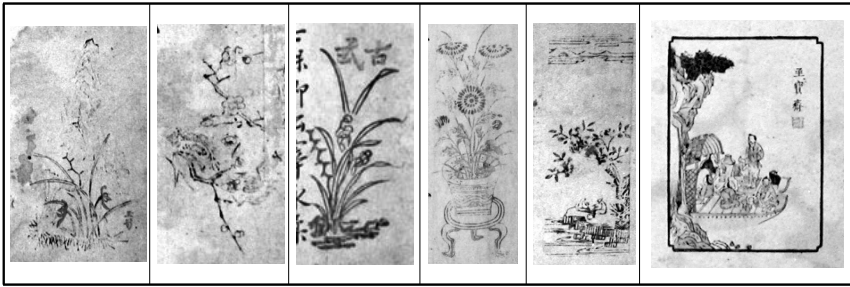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사용된 詩箋紙의 시대적 특징

죽 죽책 문양이 원하는 글씨의 크기와 형태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죽책 문양이 사라지고 우측의 문양과 문구만이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이 시면문형 시전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없는 여백 위에 본인이 쓰고자 하는 글씨와 내용을 자유롭게 쓰려는 심리가 내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면문형 시전지는 단아하고 소박한 문양과 자유롭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여백이 있으며 시전지판은 부피가 작고 간단한 형태이다. 따라서 시전지판의 보관과 사용이 용이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시면문형 시전지의 등장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측문양	우측문양+문구
	
<p>1751년, 趙重晦(1711-1782), 「餞別詩帖」, 안동김씨 삼당후손가.</p>	<p>1698년, 朴泰淳(1653-1704), 「別章帖(上)」, 해주오씨 추탄종택.</p>

<그림 10> 始面紋型 詩箋紙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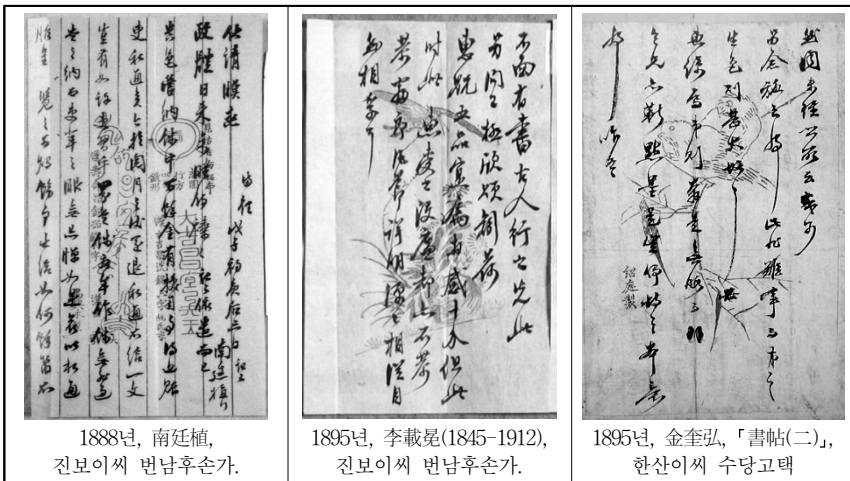
우측의 문양·문구는 죽책문형 시전지의 우측 문양·문구와 유사하나, 판화의 색깔에 있어서는 2색 이상을 사용한 예가 많고, 죽책문형의 우측문양에 비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가 나타난다(그림 11 참조). 따라서 시전지의 전체 구도가 단순해지고 우측의 작은 형태로 변화한 반면, 문양의 색상과 내용은 다양해지고 화려해져 시각적 효과가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11> 始面紋型 詩箋紙의 다색 문양의 예

3.4 D유형 : 短札紋型

청조 문화가 유행하였던 19세기부터 시전지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종이의 크기가 이전에 비하여 현격하게 작아지고 규격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D유형의 시전지는 종이크기가 확연히 작아지는 특징을 들어 편의상 短札



1888년, 南廷植, 진보이씨 번남후손가.

1895년, 李載冕(1845-1912), 진보이씨 번남후손가.

1895년, 金奎弘, 「書帖(二)」, 한산이씨 수당고택

<그림 12> 短札紋型 詩箋紙의 형태

紋型이라 하였다.⁴¹⁾ 종이의 색상과 문양의 색상이 다양하고 화려해지며, 문양의 소재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문양의 위치는 대부분 短札의 중앙에 위치하고, 문양과 관련된 글귀를 함께 새겨 넣은 경우가 많았다.

단찰문형 시전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시전지의 제조처를 표시한 시전지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전문적으로 시전지를 제조하는 곳이 늘어나고 전문 제조처에서 시전지를 판매하면서 시전지의 유통구조가 변화하였다. 이 가운데 古經山房, 錦盛, 晚悟齋, 文藻齋 등의 제조처는 여러 문중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문 제조처에서 다종·다량의 시전지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참조).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는 시전지의 규격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乾豐	古經山房		錦盛			晚悟(齋)		
南齋	萬興永	文美齋	文藻齋	紹庭	友松	利芳齋	二以氏/以堂	清秋閣

<그림 13> 短札紋型 詩箋紙 제조처의 예

41) 「詩箋紙의 유형과 특징」(손계영, 『古文書研究』 제23집, 2003)에서는 이 유형을 ‘短札型’이라 명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주 35와 마찬가지로 D유형의 명칭을 ‘短札紋型’으로 정정하고자 한다.

단찰문형 시전지의 또 다른 특징으로 시전봉투의 제작을 들 수 있다. 시전지뿐만 아니라 시전봉투를 다양하게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단찰문형 시전지와 마찬가지로 문양과 색상이 자유롭고 화려하며, 봉투의 크기 또한 규격화되었다(그림 14 참조). 현존하는 간찰의 시전지와 시전봉투가 완전한 짝을 이루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고, 서로 다른 형태와 색깔의 시전지와 시전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시전지와 시전봉투를 따로 제작하고 판매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림 14> 短札紋型 詩箋紙에 사용되었던 시전봉투의 형태

4. 맺음말

조선시대 시전지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全面紋型 시전지는 15-16세기 이전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사용된 형태로, 문양이 종이의 전면에 도포된 듯 새겨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16세기 초·중반부터 사용한 竹冊紋型 시전지의 기본형태는 죽편이 연결되어 글씨를 쓰기 용이하도록 세로줄이 있는 죽책문양이다. 죽책문양과 그 우측에 다양한 형태의 문양 또는 문구를 배치하는 경우도 많다. 17세기 중·후반까지 사용되던 죽책문형 시전지는 이후 죽책문양이 생략되고, 우측의 문양과 문구가 남아있는 始面紋型 시전지의 형태로 변화한다. 시면문형 시전지는 17세기 중반부터 사용되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유행하던 형태이다. 죽책문형 시전지에 비해 문양의 구성이 단순하고 간략해진 반면, 2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거나 문양의 내용이 다양해지는 특징이 있다. 19세기부터는 시전지의 크기가 작아지고 규격화되는 短札紋型 시전지가 크게 유행하였다. 종이의 색상과 문양의 색상이 화려해지며, 문양의 소재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시전지를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시전지에 제조처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고, 시전지 제작뿐만 아니라 시전봉투 또한 전문적으로 제작한 점이 단찰문형 시전지의 특징이다.

시전지 연구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문중이나 기관에서 公刊하여 공개되는 시전지는 16-17세기의 것이 대부분이다. 사료적 가치가 높고 시기가 올라가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8세기 이후의 자료를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18세기 이후의 시전지를 다량 소장하고 있는 몇몇 문중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조선후기 시전지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그 시기가 문중의 특정 인물이 생존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조선후기의 전반에 걸친 미세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전지에 작성되는 간찰 및 시문류는 대부분 작성연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의 경우에는 간지로 표시하거나 간지의 첫 글자만을 적고 있어 정확한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시전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시전지의 형태를 분석하는 작업 이외에 작성자 및 작성시기를 파악하는 작업이 시전지 연구의 주요 과정이자 최대 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기관 또는 문중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전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가능케 해준다. 차제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시전지의 문양과 문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시전지에 쓰여진 간찰의 내용과 시전지의 문양·문구의 연관성을 타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시전지의 제작처 및 중국 시전지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후속작업은 옛 선비들의 시전을 통한 교유의 국면을 한층 세밀하고 폭넓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魯迅全集 .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1.
- 「(影印)文淵閣四庫全書」.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5.
- 「귀중본자료집 . 한국국학진흥원, 2002.
- 「槿墨 . 성균관대학교박물관, 1981.
- 「면과 선의 세계」. 영남대학교박물관, 2001.
-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한국국학진흥원, 2002.
- 「퇴계이황 . 예술의전당, 2001.
- 「韓國簡札資料選集 2 -全州李氏 石門·白軒家門篇-」.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 韓國簡札資料選集 6 -懷德 恩津宋氏 同春堂 宋浚吉後孫家篇-」.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韓國簡札資料選集 8 -禮山 韓山李氏 修堂古宅篇-」.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韓國學資料叢書 36 -龍仁 海州吳氏 楸灘 吳允謙 宗宅典籍-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고연희. “조선시대 시전지의 판화 고찰.” 美術史學報 제23집(美術史學研究會, 2004), 253-285.
- 손계영. “詩箋紙의 유형과 특징 -竹冊型 詩箋紙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제23집(韓國古文書學會, 2003), 95-119.
- 신윤진. “韓國 詩箋紙版의 무늬와 意味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 유홍준. “시전지와 시전지 목판화 연구초(抄).” 면과 선의 세계 . 영남대학교박물관. 2001, 228-235.
- 李完雨. “韓山李氏 修堂古宅 소장 名人筆蹟.” 禮山 韓山李氏 修堂古宅篇 (韓國學中央研究院, 2005), 184-218.